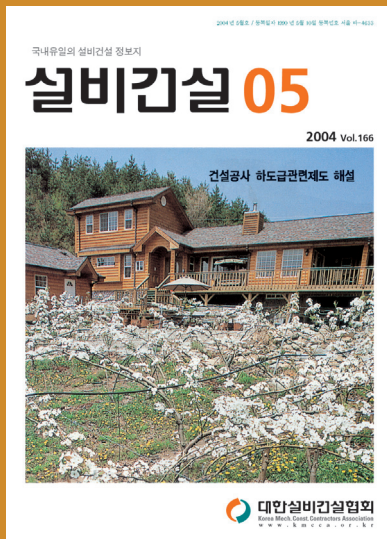


# 월간 **설비건설** 발전 방안에 따른 설문조사 실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승일)는 지난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전국 대의원을 대상으로 「월간 설비건설」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월간 설비건설」은 협회·조합소식, 회원사·조합원사 및 업계소식, 법령개정 및 건설관련정보, 신기술·신공법 소개, 해외기술정보 등 유익하고 참신한 정보를 회원사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해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앞으로도 「월간 설비건설」이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설비업계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편집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실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속적으로 회원사 소식과 현장실무 등 폭넓은 내용을 게재하기 위한 회원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취재원을 모집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법령과 고시와 건설소식이 회원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 유형별 하자사례 및 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등의 내용을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95%가 월간 설비건설(이하 '협회지')을 매월 받고 있다고 대답했으나 5%는 받을 때도 있고 받지 못할 때도 있다고 대답했으며, 그중 65%는 관심을 가지고 구독하고 있으나 35%는 대충 보는 것으로 조사되어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지를 본다면 누가 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일부직원이 80%를 차지했으며, 사장은 15%, 전직원이 둘러본다는 응답은 5%에 불과하였다.

협회지가 설비업계 전문지로서 회원사에 도움이 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령과 고시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는 건설소식, 협회 및 조합소식, 기술자료, 정부유권해석, 회원사 동정, 연구보고서, 정



책간담회 순으로 나타났다.

협회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 또는 자료에 대한 의견에서는 유형별 하자사례 및 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이어 노무관련 등 정부시책에 대한 대응방안 게재 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또 특수건물의 시공사례 및 신공법·신제품 개발사례 소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재해사례에 대한 대책 및 분석, 국책건설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소개, 설비건설인들의 동호회 활동 소개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노무 및 세무관련 등 정부시책을 소개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실무위주로 편성하여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며,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정보는 협회지에서 기술한 내용을 참고하기보다는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사가 항목 비목별 작성지침 등 현장여건에 맞는 정보가 많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지혜와 상식 코너 등을 다루어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많은 독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과 현장 탐방 등 회원사의 동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횡수면에서 다소 미비하고, 집중기획 내용이 지면 활애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회원사 소속 취재원 모집

회원사 소식과 현장실무 등 폭넓은 내용을 게재하기 위한 회원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취재원 모집에서는 △삼보건축설비(주) 공무팀 이종달 부장 외 4명이 선정되었다.

#### 월간 설비건설 취재원 명단

(가나다 순)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지역
이종달	삼보건축설비(주)	공무부	부장	서울
정진수	(주)우원	공사부	대리	서울
정진화	해성산업개발(주)	총무부	대리	광주
정효진	(주)대우건설설비	기술부	차장	경남
최상진	영풍진흥기업(주)	관리부	대리	서울

### 월간 설비건설 제2의 도약 발판 마련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정밀 분석하여 「월간 설비건설」이 기계설비분야의 중요성을 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업계의 위상 제고에도 가일층 기여하도록 각종 자료와 다양한 최신 정보로서의 가치있는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업계의 당면과제와 설비건설인의 욕구를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도출되는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